

출하량 감소... '금과일' 더 비싸지나

사과·배·감귤 등 재배면적 1.1% 감소...고령화·인건비 상승 등 원인 성목 재배면적도 줄어...4월 이후 사과 23%·배 80% 넘게 출하량 ↓

올해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들의 출하량이 또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뜰이나 비싼 과일값이 출하량 감소로 더욱 치솟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2024 과일관측 4월호'에 따르면 올해 6대 과일(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의 총 재배면적은 10만 5988ha로 전년(10만 7156ha)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는 올해 재배면적이 3만 3666ha로 전년(3만 3789ha)보다 0.4% 감소했다. 이 밖에 배(9607ha→9393ha, 2.2% ↓), 감귤(1만 9724ha→1만 9512ha, 1.1% ↓), 단감(9203ha→9076ha, 1.4% ↓), 포도(1만 4706ha→1만 4535ha, 1.2% ↓), 복숭아(2만 127ha→1만 9806ha, 1.6% ↓) 등 주요 과일들의 재배면적이

모두 줄었다.

주요 과일들의 재배 면적이 감소한 것은 산지 농가 고령화 심화와 농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원하는 과수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과의 경우 주요 과일 중 재배면적 감소 폭이 가장 적었지만, 지난해 출하량부터 지난해까지 출하량이 전년 대비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이달 이후에 사과 출하량이 전년보다 2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REI는 사과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4%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다 자라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리키는 성목 재배면적이 2.5% 감소함에 따라 출하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봤다.

지난달 기준 전체 신선과실류 중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 역시 지난달까지 출하량이 전년 동기엔 14.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이달 이후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83.8%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과와 배가 공급부족으로 인해 도매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탄저병, 냉해, 낙과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와 배는 정부가 불가 안정을 위해 저장된 물량을 풀면서 반입량도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저장량은 이달 이후 전년(10만 3000 t) 대비 23.4% 감소한 7만 9000 t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사과 반입량 역시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보다 4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KREI 관계자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의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는 빠르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늦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3-4월 중 날씨가 온화해 남부지역에서 과수 냉해 발생 확률이 낮지만, 중부지역은 지속적인 기상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봄나물 제왕 '두릅' 알고 먹자

사포닌·비타민 등 풍부...독성 성분 있어 데쳐 먹어야 안전

4월 물이 오른 산과 대지에 봄나물이 지천이다. 집과 텃밭에는 아욱과 달래가 자라고, 야산 곳곳에는 고사리 등 온갖 산나물이 얼굴을 내민다. 궁핍했던 시절 이 고마운 자연의 선물은 배고픈 이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먹거리가 됐고, 삶의 의지를 키우는 보약 같은 존재였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언 땅을 녹이고 나뭇잎이 나오기 때문이다.

산나물이야 다 좋지만, 그중 유독 이맘때 인기를 끄는 산나물이 있으니 두릅이다. 두릅은 크게 '나무두릅'(산두릅)과 '땅두릅'으로 나뉜다. 나무두릅은 두릅나무 새순인 참두릅과 엄나무순인 개두릅으로 구별하며, 땅두릅은 하우스에서 자란 재배종과 4-5월 돌아오는 새순을 땅을 파서 잘라낸 자연산이 있다.

보통 두릅이라고 하면 참두릅을 말하며, 하우스에서 재배한 땅두릅보다 조금 늦은 4월 중순부터 출하된다. 엄나무순이지만 두릅과 닮았다고 해서 두릅으로 불리는 개두릅은 두릅 중 향과 씹살한 맛이 제일 강하다. 약효가 좋아 예로부터 최고의 약재로 쳐왔는데, 나무가 커서 하우스 재배가 어렵고 4월 중순에 반짝 나오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나물로 귀한 취급을 받았다.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고 '독활(獨活)'이라고 불리는 자연산 땅두릅은 가시가 없어 줄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고, 길고 잎이 둥글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3월에 출하되는 것은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 4월 초-5월 초 판매되는 것이 자연산이다. 최근에는 시설 하우스 재배로 농가의 효자 작목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 인기 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갓가지 모양과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두릅은 공이 단백질이 많고 지방·당질·섬유질·인·칼슘·

철분·비타민(B1·B2·C)과 사포닌 등이 들어 있어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추어 주므로 당뇨·신장병·위장병에 좋다. 피로를 풀어 주며 몸에 활력을 준다. 또 춘곤증을 해소에도 제격이다. 두릅은 살짝 데쳐 물에 잠깐 우려 뒤 최고 추장을 찍어 먹으면 입맛을 돋우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튀겨 먹어도 맛이 좋다. 데친 나물을 쇠고기와 함께 꿰어 두릅 적을 만들거나 감자·튀김·샐러드로 만들어 먹는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얼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맘때쯤 몸에 좋은 봄나물을 먹고 속앓이를 하는 등 고생하는 이들도 있다. 몸이 좋지 않다고 먹었는데 독이 된 셈인데 잘못된 산나물 섭취는 식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야산이나 등산로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식물을 산나물로 오인해 먹거나 달래나 고사리, 원추리 등 독성이 있는 식용 나물을 잘못 조리해 부식을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두릅도 예외가 아니다. 두릅 즐기려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이 있어 끓는 물에 데친 후 먹는 것이 안전하다. 또 두릅은 씻어서 통에 보관하기보다는 씻지 않는 채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보관했다 먹는 편이 낫다. 채취한 지 오래되면 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채취해서 먹는 것이 효능 면에서도 더 좋다고 한다.

야생의 산물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독을 갖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 뭐라 할 수 없으니, 이를 섭취할 인간이 조심하는 게 당연하다.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원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거나 개량하는 것 또한 연구자와 농어업인의 의무인 것처럼 말이다.

/bigkim@kwangju.co.kr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aT, 어린이 화훼 체험관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훼 체험관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지난 13일 끝난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 했다.

화훼 체험관은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는 어린이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로,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향후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꽃과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해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지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약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관심을 얻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금요일저녁장터 개장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금요일 저녁장터를 개장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광주시민들의 알뜰한 장바구니를 위한 마련한 저녁장터는 개장식에 강기정 광주시장, 이현호 농협광주본부장(총괄), 박내춘 농협은행광주본부장, 광주지역 15개 지역농·축협 조합장, 고향주부모임 윤정숙 회장,

농가주부모임 황금숙 회장,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돌핀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장터에서는 사과, 배, 미니토마토, 가지, 참외, 대파, 한우 등을 시중보다 최대 45%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농산물 물러판 돌리기, 고추모종 증정, 장바구니 제공, 인절미 시식 등 다양한 사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장터를 찾은 많은 지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

을 얻었다.

또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돌핀' 회원들은 주차 및 행사장 안내를 도와 방문객들의 원활한 장터 이용을 도왔다.

이현호 본부장은 "최근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녁장터 개장과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며 "저녁장터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적절한 수취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우정청, 무안양파 농가 돕기 특별전 추진

오늘부터 양파 3kg 5900원 한정판매

전남지방우정청은 14일 우체국쇼핑 '무안양파 농가 돕기 특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잦은 비와 냉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소비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무안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무안군에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20여 일 동안 비가 내리, 일조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3월에는 냉해 피해도 발생해 성장기 조생양파 생육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전남도·무안군과 협업해 15일부터 우체국쇼핑몰(<https://mall.epost.go.kr>)을 통해 무안군의 조생종 양파 판매를 진행한다.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할인쿠폰을 지원하며 양파 3kg(소중대 혼합)를 5900원의 특별 할인가로 1만건(30t) 한정판매를 실시한다.

문근석 전남지방우정청 직무대리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무안군 양파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남청은 앞으로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농어가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